

민·관이 힘을 모아 불안정한 국제 해운물류 공급망 대응력 높인다

- 강도형 해수부 장관, 공급망 리스크(Risk) 대응 해운물류기업 대표 간담회 개최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6일(화) 주요 해운물류기업 대표와 물류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.

이번 간담회에서는 미국·중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과 이스라엘-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분쟁으로 인해 증가하는 글로벌(Global) 물류 시장 불안정성 요인을 점검하고, 이에 대응하는 미국, 유럽연합,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공급망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. 또한, 우리나라의 공급망 위기 대응 정책과 함께 앞으로 민·관 협력을 통해 추진할 대응방안도 모색했다.

강 장관은 “글로벌 공급망은 불안정하지만 경제 성장은 지속해나가야 한다.”라고 강조하며, “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공급망 리스크 대응으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	책임자	과 장	엄익환 (044-200-5750)
		담당자	사무관	박치현 (044-200-5757)